

▶ 매일 INDEX



12면

'부안 동문안 당산돌오리상' 원위치 복원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음 8월 9일) 제2864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코로나19 극복, 함께하겠습니다"
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극복 성금 1,000만원을 전북도 사회복지 공

/유호상 기자

내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남원 사석·임실 오수 선정

도, 국비 468억원 확보
소하천 정비 등에 투입
159억 예산절감 효과도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2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 사업에 응모한 2개소가 모두 선정돼 국비 468억원(총사업비 936억원)을 확보, 풍수해 안전지대 확보에 탄력을 받겠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행안부 주관 마을단위 개별의 종합정비 사업으로, 그간 부처별(행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재시설간 기능연계가 미흡해 각각 개별사업으로 추진,

다른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 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2018년에 임실군, 2019년에 김제시, 2020년도에는 4개 시·군(군산·익산·순창·부안) 등 총 6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총사업



비 2,273억원(국비 1,137억원)을 투입, 재해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20개 지구가 선정됐고 도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남원 사석지구, 임실 오수지구 2개소가 모두 선정되는 폐거를 이뤘다.

도는 그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 사업대상지 발굴과 민간 전문기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구성,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심사평가 내용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그간 우기 철에 내수침수 및 하천 범람으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남원시 사석지구는 평포장 3개소, 소하천 정비 1.1km, 지방하천 정비 2.4km, 우수관로 정비 1.7km 등에 45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실군 오수지구는 평포장 3개소, 소하천 정비 0.76km, 지방하천 정비 0.25km, 우수관로 정비 5.0km, 고랑재 개설 등에 48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 생활권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방재시설간 종합정비로 시설별 중복투자를 예방하게 돼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때 보다 159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23년도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 대상지로 남원 노암지구와 고창군 상하지구를 발굴하고, 사업타당성 용역,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해 내년도 공모사업 대상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시진)은 '이번 선정된 사업대상은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지원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연안 여객선 코로나 방역 집중 점검·산불방지 대응 체계 가동도

전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시·군별 응급진료체계를 기동한다.

또한, 연안 여객선과 이용자들의 코로나 방역 및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 대응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21개소, 응급의료시설 1개소 포함)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전북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헌의사회, 약사회와 더불어 각 시·군별로 병·의원, 약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등 비상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연휴 기간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군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재난의료

원팀(DMAT)도 상시 운영한다.

연휴기간 응급환자는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자정부터 인터넷 주요포털에서 '명절 진료'를 검색하거나,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 및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을 통해 가장 가까운 위치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전북도는 연안여객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집중 강화한다.

코로나9 확산 방지와 안전 운행을 위해 승선인원을 여객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방역체계 및 이용

시설 안전점검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방역지침에 따라 선상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 행위도 금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여객선 코로나9 방역 및 안전관리와 함께 해수점, 해양경찰서 등과 협동으로 추석 연휴 기간 특별수송대책반 구성 및 비상 대비 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추석 명절 기간 성묘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에 대비해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해 산불 예방 및 임산물 무단 채취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사전 계도 및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전개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여밀기 편하게 디자인... 미취학 어린이용 한복유니폼 출시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재학생들로 구성

창업동아리 'BIM' 개발



전주대학교는 패션산업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BIM이 미취학 어린이용 한복유니폼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진=전주대학교 제공)

창업동아리 BIM은 우리 옷 한복을 좋아하는 패션산업학과 재학생들이 모여 만든 한복동아리로, 한복에 대한 전공수업을 듣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끝나지 않고 삼품개발을 통해 한복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한복유니폼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 1학기 한국의복구성 수업 참여를 시작으로 첫 번째 삼품개발 작업인 '전주대학교 부설 전주시 원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프로그램용 어린이 한복유니폼'을 주문 생산하게 됐다. 특히 미취학 어린이를 배려해 쉽게 여울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해 한복의 우아한 색감과 선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리 지도교수인 박현정 교수는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실제 삼품 개발과 생산으로 연결되는 실무적 교육은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의 교육 방향이다'고 말했다.

삼품을 의뢰한 차경희 원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이 한복유니폼이 착용될 전통문화의 나라' 프로그램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전했다.

창업동아리 BIM 팀원들은 "여기

에 민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복 상품개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첫 번째 한복유니폼 출시를 축하했다.

한편, 전주대 패션산업학과는 패션산업 전반에 관한 철학적 교육과 팀워크란 이론 위에 실무를 더한 실무형 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병행해 패션디자이너, 삼품기획MD, 영업MD, 창업분야 등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2021년 부안군의회 하반기 회기 일정

- 제325회 임시회(10. 12. ~ 10. 22.) :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등
- 제326회 정례회(11. 16. ~ 12. 16.) : 행정사무감사 및 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부안군의회 클린민원상담센터 운영

- 접수내용 : 군정에 관한 내용 중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 접수문의 : 부안군 의회사무과 의정팀 (☎ 063-580-4092)



부안군의회
BUAN COUNTY COUNCIL